성주생명문화축제의 역사와 새로운 방향*

박 승 희**

Ⅰ. 서론
Ⅱ. 성주 태실문화와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역사
Ⅲ. 성주생명문화축제의 현재와 한계
Ⅳ.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새로운 방향과 콘텐츠
1. 생명문화축제와 스토리텔링
2. 생명문화축제의 콘텐츠
Ⅴ.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성주의 세종대왕자 태실의 역사성을 제고하고, 이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한 성주생명문화축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있다.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동시에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성주군에서는 2011년 이후 성주생명문화축제를 통해 태실의 생명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역사자원에 대한 홍보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축제를 해 오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축제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성, 특히 축제 정체성과 콘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부설 영남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2017.9.22.)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bround33@ynu.ac.kr

텐츠의 가능성 등을 살펴 본 것이다. 축제의 특성과 대중성, 역사문화의 가치 정체성, 확장성 등을 축제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축제 정체성 기반 스토리텔링과 주제성, 대중성을 지역적 현재성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축제 공간 콘텐츠와 생활사 트레일, 인간 안보 생명문화축제 등을 축제 콘텐츠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세종대왕자 태실, 성주생명문화축제, 축제 정체성, 축제 스토리텔링, 생활사 트레일, 인간안보 생명문화축제

Ⅰ. 서론

모든 전통과 역사문화는 인간 삶의 실존 문제와 당대의 문화적 소통 방식을 토대로 형성된다. 따라서 역사문화는 역사를 관통하는 삶의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문화 형태와 의례를 통해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문화는 삶의 보편성과 독창적인 문화 양식이 만나는 매우 특별한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콘텐츠는 우리 시대 삶의 문제와 역사가 만나는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며, 대중적 기호와 문화적 상상력이 교감하는 특별한 문화의 장(場)인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제안되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나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이 평가되는 요즘이다. 역사문화자원이란 전통 민속이나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과 문화적 표현 양식, 역사 인물과 인문적 가치, 생활과 관련된 고유한 문화 특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 사회나 지역의 주요한 역사적 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여 년 간 국가의 문화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경쟁력 강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역사문화자원의 재발견 혹은 현재적 재구성이었다. 그것은 전통문화 원형의 발굴이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문화적 재현과 디지털 멀티미디어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성이란 아젠다 또한 지역문화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방향성 속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1999년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콘텐츠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문화산업 혹은 문화상품화란 의미로 해석되는 문화콘텐츠는 그 개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의 현재적 제고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과 관련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면서 이를 지역 관광 및 경제적 가치

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발굴이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즉 경제적 가치와 효율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지역 문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의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와 정체성, 지역 문화의 현재성 등에 대한 깊은 천착에 앞서 지자체의 성과물이나 상품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적 경쟁력은 상품 구성이나 경제적 판단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지역 문화의 특성과 역사, 당대적 삶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현재적 기호와의 독창적인 만남과 재구성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문화적 역량이 생성된다. 그러나 현실은 문화 원형에 내재된 지역성, 공동체성, 양식적 독창성, 대중성 보다 상품 기획 과정의 소재나 콘텐츠로만 지역 문화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연구, 이를 토대로 하는 역사문화콘텐츠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축제이다. 흔히 지역 축제는 지역의 역사문화나 지역 환경(인문 및 자연환경), 특산물이나 관습, 민속 문화, 인물과 사건 등 지역의 생활이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왔다. 즉 지역의 문화 원형이 축제의 핵심적 전제였다. 주요 지역문화축제들은 지역의 문화 원형에 대한 가치적 재발견하고 그 가치의 의례적 재구성을 통해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성장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 축제들이 일회적인 관광 산업과 경제적 숫자의 범위 안에서 기획되거나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성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세종대왕자 태실'이라는 역사 공간과 태실로 상징되는 생명문화를 근거로 하는 문화축제의 하나이다. 생명문화축제는 성주 태실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생명에 대한 당대적 인식을 대중화 하는 중요한 문화적 의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화합, 나아가 공동의 이

익과 지역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의 일환이다. 또한, 지역 관광과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가 지닌 역사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성주생명문화축제가 태실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생명문화의 대중적 공감의 장으로서 태실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생명문화라는 축제의 콘텐츠 방향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쓴 것이다.

Ⅱ. 성주의 태실문화와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역사

주지하다시피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은 세종의 18명의 아들과 손자인 단종의 태실 등 모두 19기의 태실이 봉안 곳으로, 국가 사적 444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는 태실의 역사적 가치가 일차적인 이유이겠지만, 태실에 내재된 생명에 대한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시대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문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태실이 품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성주에서는 태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명문화콘텐츠가 개발되거나 실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실 생명문화공원'이며, 공원의 핵심 장소인 '태실문화관'이다. 태실 생명문화공원과 태실문화관은 세종대왕자 태실 아래 위치(성주군 월항면 인촌리)하고 있는데, 생명문화공원은 태문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태실문화관은 태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아카이브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태 문화에 대한 소개와 태실의 구조, 관련 의례, 길지로서의 성주의 인문지리적 가치 등이 주요한 콘

텐츠이다. 특히, 태실을 비롯한 한개 마을, 성산동 고분군을 연결하여 생(生)·활(活)·사(死)의 고장으로서 성주를 강조하는 지역홍보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생(生)·활(活)·사(死)는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주 테마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성주의 지역 브랜드이기도 하다.

태실문화관의 콘텐츠를 범박하게 요약하자면, '태(실) 문화'와 '생명문화의 성지 성주'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 태 문화를 둘러싼 민간과 왕실의 의례와 철학을 설명하고, 태를 봉안한 성주의 지리적 위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 태실문화관이다. 그러나 태실문화관은 태 문화의 가치와 함께 생명 사상을 집적한 문화 공간으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태 문화관을 생명문화관으로 전환시키고, 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문화 관련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태 문화 및 생명 문화에 대한 스토리 구성 등을 전제해야 한다.

여기서 생명문화 아카이브란 태(실) 문화의 역사는 물론 생명문화와 관련된 전면적인 아카이브작업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자 태실 일대를 생명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명문화의 성지로 조성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명문화 아카이브가 가장 본질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확보된 태(실)의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다양한 생명문화 관련 문헌 자료와 태(실)의 세계문화사적인 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명문화와 관련된 문화적 흔적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해야 한다. 생명문화와 관련된 일상사, 전통 생명문화사, 의료 및 자연 생태 등 생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 문화에 대한 경험 및 증언, 이야기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생명문화 아카이브 체계는 성주를 태실문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생명문화에 관한 모든 자료와 미래를 보여주는 명실 공히 세계적인 생명문화의 현장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편, 현재 태실문화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명문화관으로의 전환도 여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태실문화관의 시작점인 성주의 역사성을 압축한 생(生)·활(活)·사(死) 공간부터 살펴보자. 이는 성주의

핵심적인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실문화관의 주제 공간이기도 하다.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존재론적 가치를 지역의 문화적 표상으로 연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태실과 한개 마을, 성산동 고분은 삶의 실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삶으로부터 파생된 문화적 형상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生)·활(活)·사(死)란 테마는 삶과 문화의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상상적 재현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명 탄생에 대한 문화적 재현인 태실의 역사성과 선비의 한개 마을, 고분군을 어떻게 연결하고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연결하는 메타포와 삶의 실제, 이에 대한 문화적 재현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생(生)·활(活)·사(死)를 태실과 한개 마을, 고분군으로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컨셉(concept)과 스토리(story)가 필요하다. 실제 왕자들을 향한 세종대왕의 마음과 한개 마을 유학자들의 생명과 시대를 향한 학문과 정신의 세계, 고분군 가야인들의 생명력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경외 등이 풍부한 이야기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태실문화관에서 전시 소개하고 있는 태 문화에 관한 내용은 흥미롭다. 태교음식과 왕실의 태교, 세태의식(洗胎儀式) 등은 교육 및 문화 콘텐츠로서의 확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주 생활 속에 담긴 생명을 위한 전통문화를 재구성함으로써 태실문화관이 생명문화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의식주 생활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통 문화에 내재된 생명 사상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는 태실문화관의 공간과 기능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태실문화관의 마지막 지점에서 만나는 '태실의 수난사'는 역사 스토리와 태실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태실의 수난사는 조선의 정치

사이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이다. 특히 일제의 태실 수탈의 과정은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특별히 보여주는 현장이자 일제의 반생명적 작태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는 태실이 조선 정치사의 현장이자 일제 강점의 수난사의 상징적인 공간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실의 역사와 수난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태실문화관의 핵심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성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실)문화와 생명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핵심은 '세종대왕자 태실 태 봉안의식 재현'이다. 세종대왕자 태 봉안의식은 조선조 초기 왕자의 출산 시에 거행되었던 의식을 재현하는 것으로, 태를 씻어 태항아리에 담아 안치하고 장태지인 성주까지 봉안하는 장태의식이다.[1] 태 봉안 의식은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세태 및 봉출의식(궁중에서의 의식)과 경복궁을 출발한 안태사(장태 담당 관리) 행렬을 태봉지인 경북 성주군 초입에서 관찰사 등이 맞이하는 영접 및 봉안의식(장태지에서의 의식)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2007년 120년 만에 재현된 태 봉안의식은 의례 그 자체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크다. 그리고 태 봉안의식은 태(실) 문화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문화 속에 담긴 생명에 대한 선조들의 정신과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태 봉안의식은 전통 의례의 복원이란 의미와 함께 태(실)문화의 현재성을 실현하는 가장 큰 규모의 의례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태(실)문화의 현재성이란 우리 시대의 기호와 대중성, 사회적 가치가 태 봉안의식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봉안의식이 전통문화로서의 원형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의 전승적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전통의 재현을 통한 문화의 시대적 재발견 또한 우리 시대의 요구이자 임무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재현은 단순 복원의 의미를 넘어 지금의 시대가치와 감성, 대중들의 사회적 이해 등과 만나는 일이다. 이러한 태(실)문화

1) 당시 태실 봉안에 대한 복원 과정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 태 봉안 관련 의궤를 중심으로 복원과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조선 초기의 의궤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조선 중기의 태 봉안 의궤를 참고하여 재현하였다.

의 현재성을 실현하는 장이 바로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성주생명문화축제는 태실의 역사가 현재의 대중을 만나는 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역사문화의 복원과 재구성을 통해 생명문화의 현재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성주생명문화축제의 과정과 축제 콘텐츠 등에 나타난 가능성과 한계 등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Ⅲ. 성주생명문화축제의 현재와 한계

성주생명문화축제는 태실을 세워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담았던 세종 당대의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재론적인 의미를 우리 시대에 새롭게 대중화, 현재화 하는 역사문화의 재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지역 축제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2000년 이후 한국 지역축제의 변화와 성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00년 이전까지 지역에서 진행된 축제는 지역민들의 내부적 단합과 지역 특산물 등 홍보를 목적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 축제가 지역의 역사문화에 토대를 둔 지역 정체성과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재발견되면서 지역축제는 양과 질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성주생명문화축제 또한 지역 특산물축제로부터 역사문화축제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성주생명문화축제 이전까지 성주에서는 지역 특산물 축제인 참외축제가 개최되었다. 특산물 축제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참외축제’는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참외 생산량 감소 등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 요인과 지역 축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새로운 지역 축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그것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 콘텐츠로서의 재발견 과정이었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을 지역의 정체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대중적인 이미지 확장과 관광 축제

적 성격을 결합한 지역 축제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는 '태실'로 상징되는 역사적 공간성과 '태실 태 봉안의식'의 전통 의례를 토대로 '생명문화'라는 주제로 재구성한 역사문화축제이다. 역사문화를 활용한 대부분의 지역 축제가 특정 문화재나 문화 인물 등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생명문화'란 인문적 가치를 전면화함으로써 다른 축제와의 차별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성패는 축제의 인문성이 어떻게 축제 콘텐츠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축제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해 보자.

2007년 '세종대왕자 태실 태 봉안의식'이 경복궁과 성주에서 거행된 뒤 태실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일어난 바가 있다. 이후 2010년 '세종대왕자태실 태봉안 행사'가 지역에서 다시 시험적으로 거행되고, 2011년 기존의 참외축제와 태 봉안의식을 통합한 '성주생명문화축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축제 통합의 과정은 단순히 두 행사의 통합을 넘어 축제의 방향과 관점, 콘텐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축제의 성격과 지역성,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해 등 축제를 둘러싼 성찰과 함께 새로운 축제 콘텐츠 발굴이라는 과제는 던져졌고, 성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 중 성주 태실의 가치와 역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태실은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넘어 생명에 대한 인간의 경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 그리고 생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란 점에서 축제로서의 대중성, 보편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축제 콘텐츠였다. 태실 봉안의식에 대한 용역과 축제 전문가들의 기획과 설계 등이 이어졌고, 결국 제1회 성주생명문화축제가 2011년 개최되었다.

제1회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인문축제로서의 축제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生)·활(活)·사(死)'란 주제와 '신비한 생명여행'이란 타이틀로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생(生)·활(活)·사(死)'란 제목은 이후 축제의 주

테마로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주제어가 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이자 공간인 태실과 한개마을, 고분군을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으로 연결하고 이를 축제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태실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공간을 지역의 정체성으로 재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응축함으로써 지역 공간과 지역민들의 삶의 실제를 역사적 가치로 묶음으로써 일어나는 상상적 재현은 말 그대로 자기 정체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또한 성주의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제고(提高)하는 효과도 컸다. 성주의 역사성과 우수한 문화 상징체계가 동시에 드러남으로써 성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축제의 관점에서 보면, 축제는 많은 한계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생(生)·활(活)·사(死)'란 용어가 지나치게 개념적이라 일반 관람객들에게 직접적인 의미망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큰 개념을 제시한 뒤 관련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이 우선 한계로 지적된다. 축제의 여러 프로그램이 주제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개념에 비해 콘텐츠가 떨어지거나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축제는 개념의 전달이 아니라 축제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 문화적 인지나 경험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生)·활(活)·사(死)'란 독창적인 인문 주제를 선점하였지만 대중적인 접근성이나 축제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한편, 2015년의 주제관과 태문화특별관 등은 축제 공간 구성과 축제 콘텐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태아 모습을 형상화한 2015년 주제관은 영상관, 생명나눔관, 생활사체험관, 웰다잉(Well-dying)체험관, 세계태문화특별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태 봉안행렬 다큐멘터리 상영을 통해 태 봉안의식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한편, 태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콘텐츠나 생명 탄생을 청각으로 느끼는 과정 등 주제관과 생명나눔관의 콘텐츠는 태 문화의 전달과 태실 소개에 집중하였다.

생활사 체험관의 경우는 제시된 생활사 콘텐츠가 축제의 메인 타이틀인

‘생(生)·활(活)·사(死)’인지 일상사의 생활사(生活史)인지 다소 혼란스럽게 구성이 되었으나, 양아록이란 육아일기를 통해 육아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은 생명의 탄생과 육아를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콘텐츠였다. 이는 탄생과 육아, 교육, 죽음과 성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축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축제 콘텐츠 중 생명문화 축제의 성격을 잘 드러낸 것은 ‘웰다잉(Well-dying)체험관’이다. 죽음의 의미를 가치 있는 삶과 생명의 문제로 치환시킨 축제 컨셉(concept)은 축제의 성격은 물론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은 것이다. 다만, 묘비명 쓰기, 입관 체험 등 지나치게 소재주의적이거나 단순 체험 위주의 구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웰다잉과 자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 예를 들면 좋은 죽음에 대한 사례와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재구성하거나 체험하는 과정, 혹은 성찰의 시간과 반성문 쓰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10가지 준비물, 지금 죽는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등 지금 자신의 문제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6년 생명문화축제는 ‘왕버들 이야기’를 주제로 성주의 대표적인 자연문화 공간인 성밖숲에서 개최되었다. 성밖숲은 500년 수령을 자랑하는 왕버들의 숲이다. 생명문화의 공간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장소로, 생명문화축제 공간으로는 적격인 곳이다. 다만, 2016년 축제의 주제가 ‘왕버들의 생명문화’가 아니라 ‘왕버들 이야기’란 점은 다소 아쉽다. 물론 ‘왕버들 이이기’ 속에는 왕버들의 일화와 왕버들로 상징되는 생명 이미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축제의 직접성과 대중성, 전면성의 측면에서 보면, ‘왕버들 이야기’는 소재는 되지만 주제로 제시되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생명문화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생명문화 브랜드 가치 창출’, ‘생산적 축제’ 등 주요 추진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군민들의 참여형 축제’와 ‘안전 축제’를 강조하면서 지역 축제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생명문화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축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2016년 축제의 목표는 축제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축제의 내적 성장을 멈추고 생명문화축제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명문화에 대한 집중과 진화된 프로그램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축제 목표를 지나치게 다양화 한 것은 오히려 축제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프로그램 중 핵심은 '생(生)·활(活)·사(死) 테마관'이라 할 수 있다. 생 테마관은 '생명문화체험존(입체 태실 등)'과 '생명탄생모래아트' 등 체험과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활 테마관의 경우, 2015년의 양아록(육아일기)을 애니메이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시연하거나 '우리 사는 세상'과 같은 성주의 일상적 삶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사 테마관은 웰다잉을 2015년에 이어 연속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생활사를 각각 분리하고 2015년도 비해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진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生)·활(活)·사(死)'라는 축제 주제가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나 프로그램으로 풍부하게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생(生)·활(活)·사(死)'란 주제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여전히 떨어지거나 축제적 재구성에 대한 콘텐츠 부족을 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분적이지만 생명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축제의 성장점을 만들고 있었다. 생 테마관의 '왕버들이 들려주는 생명이야기'가 그 중 하나다. 사실 생명 스토리는 다양하다. 생명 탄생 이야기는 물론 생명을 구한 동물들의 이야기, 생명을 내던진 영웅 이야기,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위대한 스토리 등 축제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왕버들'이란 캐릭터가 들려주는 생명이야기는 '자연 친화형 스토리'의 전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활 테마관의 '성주 라디오스타, 우리 사는 이야기'은 성주군민과 축제, 지역의 일상이 만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다. '보이는 라디오' 방식을 통해 주민과 관람객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그 공간 또한 축제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성주군민은 물론 관람객과 내외부인들을 만나고 소개하는 축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사 테마관에서 진행된 '나에게 쓰는 편지/나쁜 기억 지우개'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향과 내용은 생명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명에 대한 축제의 시선을 자신의 삶과 미래, 혹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외 2016년 축제에서 특별히 기획된 VR 체험과 전시 등은 매체와 축제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를 남겼다. VR 등 입체적인 영상 체험과 실제 공간 체험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실감과 이미지 체험의 연결 구조를 찾고 이를 축제의 장에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기획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2017년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엄마, 어디가? 별고을, 별난 나들이 간다!'란 제목으로 지난 5월 개최되었다. 엄마란 호명 속에 아이(태아)와 엄마 간의 존재적 연대감과 생명의 연속성을 결합시킨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의 내용과 콘텐츠를 한 단계 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생명문화축제의 주 테마인 생명성을 엄마(여성)로부터 획득하고, 이를 축제의 장에서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특히 주제관 '생명의 숲'과 성밖숲 체험 '엄마의 숲' 프로그램은 대부분 생명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 것들이다.

'생명의 숲'에서는 성주 태실에 대한 소개로부터 생명인형극과 영상으로 태 문화를 만나는 기획으로 구성되었다. 생명인형극은 생명의 탄생과 신비를 재현한 것으로 어린 관람객의 동선과 관심을 유도하는 인형 소극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 영상 '태'는 태 문화의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한 것으로, 태를 통한 생명문화에 대한 전통 의식과 우리 시대의 생명 의식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축제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축제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엄마의 숲'은 이번 축제의 테마 공간이자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 눈이 띄는 기획이었다. 우선 성밖숲의 생명 이미지를 활용하여 '엄마의 품' 혹

은 '엄마의 숲'으로 장소성을 구현한 점이 축제의 전체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한 생명문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여성성을 엄마(여성)의 존재와 삶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결혼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생명 탄생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엄마의 생(生) 스튜디오'란 프로그램에서는 엄마의 생애를 결혼, 임신, 가족이라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다. 그 외 '숲속임신육아교실'이나 '태교 산림욕' 등은 다소 인위적인 행사에 그쳐, 육아와 태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 행사의 하나로 치러진 '생명 선포식'은 태실의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생명 선포식'은 축제 시작의 의미와 함께 제목 그대로 생명에 대한 선포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생명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엄숙히 선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곧 축제의 무게감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며, 나아가 축제의 전국적 혹은 글로벌 이미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최고 이벤트(event)는 '세종대왕자 태 봉안의식 및 행렬'이다. 2007년 이후 거행된 봉안의식과 행렬은 서울의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그리고 성주 축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복궁 봉안 의식은 세태의식(경복궁 교태전)과 태봉지 낙점, 누자 안치(강녕전)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봉안 행렬은 성주 군청과 성주 시가지를 돌아 축제장인 성밖숲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태 봉안 안태사를 관찰사가 영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안의식은 전통 의례에 의해 진행되며, 행렬은 주민 참여와 축제의 규모와 비주얼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동시에 한다. 120년 만에 다시 복원된 태 봉안의식은 그 자체로 경건하고 흥미로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축제 콘텐츠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축제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축제 홍보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봉안 행렬은 성주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단체와 학교, 기관 등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축제의 기본 동력이자 핵심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동원의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 단오제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무엇보다도 강릉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축제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그것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단오 항아리 등을 통해 참여 시민들의 기원과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참여의 동기와 매개를 만드는 것도 축제 기획의 핵심 중 하나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성주 태실문화의 대중화와 지역축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새로운 변화를 고민할 때이다. 태실을 모태로 한 생명문화축제의 방향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고구(考究)할 시기이다. 생명문화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이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생명문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Ⅳ.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새로운 방향과 콘텐츠

성주생명문화축제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축제 콘텐츠 기획은 생명문화축제의 본질인 '생명문화'에 대한 집중과 이에 기반한 지역문화와 축제의 관계 구축, 축제 스토리와 축제 콘텐츠의 재구성, 그리고 축제의 현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문화라는 축제의 원 개념으로부터 축제가 출발해야 한다. 생명문화는 생명에 대한 상상력이자 존재에 대한 경외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생명문화축제는 생명에 대한 특별한 대중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를 포함한 생명문화의 제 형태들을 축제의 공간에 집적하고 이를 대중과 교감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1. 생명문화축제와 스토리텔링

생명문화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보내는 경의이자 존엄의 서사이다. 생명문화축제는 이러한 서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할 때, 축제로 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를 구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가치는 실현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 축제가 관광이나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결국 매력적인 축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주생명문화축제와 같은 역사문화축제는 지역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역사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다양한 축제 콘텐츠로 전환시킨 것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현되는 문화이벤트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히 역사문화 축제는 지역의 문화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축제가 관광 상품화 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축제의 기본원칙, 즉 축제 정체성이 무시되거나 지역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분석과 조사 단계가 생략된 채,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 정체성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과정이 생략되거나 극히 임의적으로 처리되면서 축제의 대중적 인지도나 이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관광개발이나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축제적 정체성과 지역문화자원이 탈맥락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2] 이는 결국 축제 관람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문화에 대한 매력도를 약화시키고 축제 참여 동기를 무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축제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은 지역문화의 본원적 가치는 물론 역사문화와 지역, 그리고 참여자 간의 감성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최근에 관광학 분야나 축제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적인 접근이 방문객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스토리

2)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제8호, 2006, 39~57쪽.

텔링(storytelling)은 일반적으로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라는 표현을 합성한 단어로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 원형 스토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가치와 의미를 대상에게 쉽게 전달하거나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토리를 둘러싼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속에 인간 삶의 원형질과 감정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인간의 자기표현방식 중 하나로서 스토리텔링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3)]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성주의 태실과 태 문화를 모태로 하는 생명문화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 행사이다. 그러므로 태실과 태문화의 원형적 가치가 대중들에게 표현되고 전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감성을 판매하는 콘텐츠이며, 지역과 국가를 넘어 그 문화적 감성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모든 축제는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감정과 이미지로 전달한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 물리적 시설과 환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하여 이를 표현하며, 축제 방문객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방문객의 축제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4)]

스토리텔링은 축제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축제의 방문객 혹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서사적 구조를 만나게 된다. 스토리텔링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사 구조를 이야기(story)와 표현(telling)으로 구분한다.[5)] 그리고 이야기 구조는 축제의 주제, 축제의 보편적 원형(Archetype), 축제만의 특수성, 지역적 특성, 문화(예술)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표현 영역에서는 시각적, 감성적, 행동적 표현을 고려한다. 즉

3)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4) 신현식,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19호, 2010, 512쪽.
5)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2003, 19쪽.

축제 스토리텔링은 축제의 핵심 이야기를 찾고, 이를 대중적인 서사 체계로 표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와 표현을 통해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새로운 방향과 콘텐츠를 생각해 볼 수 필요가 있다. 우선 축제의 가치이자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중심으로 성주생명문화축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1) 축제의 주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모태는 태실이다. 그러므로 축제의 주제도 태실에서 찾아야 한다. 태실은 생명 존엄의 역사문화적 현장이다. 방문객들은 태실의 실재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생명 존엄의 정신과 역사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에 대해 기원한다. 생명 탄생의 상징인 태를 봉안한 역사 앞에서 봉안된 역사 속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과정은 지역과 역사, 문화와 실존 사이의 교감이다. 태실은 곧 무병장수에 대한 기원과 교감의 장이 된다. 또한 태실은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태실 관람과 방문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축제를 통해 우리시대 생명문화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주제를 생명문화를 통한 삶의 교감 혹은 공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무병장수', '명당발복'이라는 대중적 주제를 획득해야 한다. 생명문화축제의 정체성 또한 여기서 찾아야 한다.

지난 생명문화축제의 주제 중 '신비로운 생명여행'(2011), '생명의 땅 성주'(2012), '왕버들 이야기'(2016), '엄마 어디가'(2017) 등은 생명의 신비로부터 생명의 땅과 자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일종의 호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의 이름으로 호명한 자연과 지역문화, 엄마라는 존재와 관람객들의 현실과 교감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연결하는 축제 스토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축제의 주제는 스토리텔링의 주제이며 대중을 만나는 콘텐츠의 구성틀이다.

지금까지 축제의 핵심 주제로 제시되었던 '생활사'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 탄생과 죽음을 아우르는 현실적 삶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 현실적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생명 존엄과 죽음에 대한 가치 재발견 등 대중적인 만남을 위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2) 보편적 원형(Archetype)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생명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이라는 굉장히 큰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태실과 한개 마을, 고분군의 지역적 유산을 결합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고려한 것이지만 주제가 모든 존재론을 포괄하는 너무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람객이나 축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태실의 생명 탄생에 대한 역사적 존엄과 한개마을의 선비 정신과 삶의 태도, 죽음의 장엄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행복한 삶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정도일 것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는 관람객들에게 지역문화를 통해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 압축하면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과 경험의 장으로 인식될 것이다. 즉 생명문화축제의 아카타입(Archetype)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3) 축제의 독창성

성주생명문화축제만의 독창성은 무엇인가. 첫째는 성주가 생명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가 집적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국 최고의 태실과 한개마을, 고분군 등의 역사문화는 축제의 근간이며, 축제의 차별적 지점이다. 둘째, 태 봉안 의식과 행렬을 실연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범위와 규모를 넘는 전국적 반경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생명문화라는 인문적 가치를 축제의 주제로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주생명문화축제만의 차별성 및 독창성은 축제 참여의 동기와 매개로 작용해야 한다.

4) 지역적 특성

생명축제를 개최하는 성주는 세종대왕자 태실이 봉안될 정도로 좋은 땅을 가진 곳이다. 성주 태실은 풍수로 볼 때, 전국의 태실 중에 혈장(穴場)의 규모가 가장 크고, 내맥이 태실지로서 최고 적격이라고 한다.[6] 지금도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는 남다른 풍미를 자랑하고 있어 땅의 재질 또한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대로부터 낙동강의 철기문화를 꽃피운 성산가야의 본산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개마을, 덕암서원 등 조선 유학의 맥을 이어온 정신문화의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실로 상징되는 생명에 대한 특별한 역사와 곧고 정한 유학자들의 정신세계를 동시에 품고 있는 고장인 것이다. 더욱이 고대의 가야문화와 생활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산동 고분군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주는 좋은 땅과 유학 정신, 고대 문화가 아우러진 역사문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탄생과 삶의 참 의미, 죽음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주이다.

5) 문화예술적 특성

성주는 1988년부터 이어져 온 '전국 민족극한마당'의 산실이다. 그것은 전국의 민족극 관련 단체와 마당극단이 모여 민족 전통극을 계승하고 시대의 문제를 극으로 보여준 전국적인 축제였다. 전통문화와 자연,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적 상상력과 경험이 축적된 곳이 바로 성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주의 문화역량은 성주생명문화축제의 동력이며, 생명문화 엑스포 등 축제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콘텐츠라 될 것이다.

축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속성은 축제의 기획과 연출, 콘텐츠 구성에 있어 그 본질이며 내용이 된다. 축제는 관람객이나 방문자들이 이를 인지하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축제로 받아들인다. 위에서 말한 축제의 주제,

6) 김두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별고을 성주, 생명을 품다』, 2015, 235쪽.

보편적 원형, 축제의 독창성, 지역적 특성과 문화예술적 특성 등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들이다. 이러한 기본 속성에 대한 확인과 조사·연구를 통해 생명문화축제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축제 스토리텔링의 또 한 축은 표현이다. 이야기 속성이 '무엇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지에 해당된다면, 표현의 문제는 '어떻게' 축제를 구현할 것인가이다. 스토리텔링의 표현 영역은 주로 시각적, 감성적, 행위적(체험적) 표현으로 구분한다. 시각적 표현은 축제 방문자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축제의 시각적 이미지들이다. 무대, 안내판, 경관, 전시물, 홍보물은 물론 무엇보다도 축제의 공간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시각적 표현이다. 둘째 감성적 표현은 축제 관람객의 감각을 통해 체감하는 감성들로 색채, 음악, 영상, 무대 공연 등을 의미한다. 행위적 표현은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체험과 능동적 행동을 통해 축제와 교감할 수 있는 표현 형태들이다.[7]

이러한 축제의 이야기(story)와 표현(telling) 영역을 고려할 때, 성주생명문화축제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 축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이야기 속성을 토대로 축제 콘텐츠의 표현과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명문화의 실체(현장)에 대한 축제적 재구성이며 방문관람객들과의 교감 실현이다. 둘째는 무병장수, 명당발복의 기원과 소망을 축제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전통 생명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체험의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와 관광을 통한 지역에 대한 실감 등이다.

2. 생명문화축제 콘텐츠

1) 축제 공간 콘텐츠

7) 신현식,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10, p.513.

축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축제 콘텐츠 구축은 축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지역 축제들은 그 정체성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생명문화축제의 이야기 속성을 참고하여 몇 가지 축제의 주요 표현 방식과 콘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태실과 선석사, 생명문화공원 일대의 공간적 재구성이다. 조선 최고의 길지(吉地)로 인정받은 태실 일대는 신성의 이미지와 무병장수와 명당발복(明堂發福), 즉 생명에 관한 대중적 이미지가 동시에 내재된 특수한 영역이었다. 축제 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은 축제의 이야기 속성이 전면화된 공간으로 축제를 위한 장소성을 확보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모든 사회적 행위는 항상 종교성과 신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삶의 공간과 종교 및 신성의 공간을 구분하고 경계를 두었다. 그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신성의 세계가 통합되고 교감하는 공간으로 제의례(祭儀禮)의 장소가 인간들의 삶의 내부에 존재해 왔다. 한편으로 이 공간은 전통적 문화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었으며, 문화적 접촉과 교류가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태실 일대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 공간의 정체성이 그대로 내재된 곳으로, 현대 축제로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해 축제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태실이 있는 월항면 인촌리 일대는 태실 아래 주차장과 태실로 오르는 길, 그 앞으로 조성된 생명문화공원과 태실문화관, 그리고 태실의 수호사찰인 선석사와 태실법당 등이 태실을 둘러싼 주요 공간들이다. 이 공간들은 모두 태실과 관련된 공간이지만 또한 각각의 공간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태실로 오르는 길과 태실은 태를 봉안한 길지로서 신성한 공간 이미지를 지닌 곳이다. 작은 오솔길과 그 위에 봉안된 태실의 풍광은 길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태실과 오솔길은 신성한 축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정신의 꼭지점이 되는 곳이다. 그리고 태실 아래 주차장 공간은 태실을 받들고 있는 자리로 의례의 무대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태실문화관과 생명문화공원은 태실 문화와 생명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장(場)으로 기능하는

곳이다. 한편 선석사는 기도 도량으로 또 다른 태실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곳이다. 태실의 수호사찰로서 선석사는 기도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안녕을 구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태실을 둘러싼 각 공간의 특징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이곳은 공간의 신성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품은 곳으로, 축제적 재구성을 통해 생명문화축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현재 축제 장소로 성밖숲이 사용되고 있다. 대중성과 접근성, 공간의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성밖숲은 축제 장소로서 비교적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생명문화축제의 축제 정체성을 실현하고 역사문화축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축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성밖숲이 대중적인 축제 공간이라면, 태실은 신성한 의례와 기원의 전통 축제 공간이다. 이 두 곳의 연결하는 새로운 축제 공간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생명문화축제는 신성성을 지닌 전통축제와 대중적인 현대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진정한 역사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성주생명문화축제가 세계적인 생명문화축제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태실 공간의 축제 공간으로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선, 태실의 신성성을 강화하는 공간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성스러운 공간은 원초적인 시공간으로 외적으로는 폐쇄적이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개방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8] 그러므로 태실을 축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경우, 외부에 있는 관람객 등을 내부로 흡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태실 공간을 제의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제의 공간 속에 금제와 기원이란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길지로서의 신성한 공간 이미지와 명당발복 및 무병장수에 대한 기원을 제의적 공간 속에서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태실을 금제의 신성공간으로, 그리고 기원의 대중적 공간으로 선석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실 주차장(무대)에서는 전통적 제의가 펼쳐지

8) 김태경, 「서울축제의 공간에 나타난 전통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9, 서울학 연구소, 1998. p.303.

고, 생명문화공원에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관람객들은 신성한 생명문화에 대한 경외와 함께 자신과 축제의 관계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2) 생활사(生活死) 역사문화 트레일(trail) 콘텐츠

길을 문화 콘텐츠의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은 인공적, 자연적, 문화적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연결 공간을 지칭한다. 이러한 길을 조성하고 계획할 때, 주로 트레일(Trail)이란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트레일은 독창적인 공간이나 건물, 다양한 자연 환경 등을 매개로 보행자의 심미적, 정신적, 문화적 즐거움과 안정을 제공하는 계획된 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환경생태적이며 역사문화적인 지역 자원을 토대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문화행위를 위해 공간을 재구성한 결과라고도 한다.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주제인 '생(生)활(活)사(死)'는 물론 지역 축제는 지역의 공간과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축제의 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의 '생(生)활(活)사(死)'란 축제 주제는 곧 지역의 물질적인 공간이며 역사문화의 현장과 문화를 매개하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문화축제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상징성이나 문화자원의 지역적 가치를 축제 공간 안에서만 구현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축제 공간이 고정화되거나 단일한 공간으로 폐쇄화된다. 성주생명문화축제도 지역의 여러 공간과 장소의 문화자원을 축제의 근거로 하고 있지만, 축제 공간은 성밖숲으로 고정화 되어 있다. 초기에 성산동 고분군과 한개마을 등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긴 했지만, 일회적이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콘텐츠를 전면화 한 적은 없다.

성주는 태실을 비롯한 길지의 고장으로 풍수에 의해 입지되고 조성된 곳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산과 강, 조망과 기운의 흐름 등을 고려한 좋은 자리에는 태실과 마을, 고분군과 같은 역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성주 지역의 좋은 땅 이미지는 땅과 사람, 생활과 공간, 역사와 문화를 연결

하는 주요한 연결 고리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축제 주제를 실현하고 지역의 좋은 땅 이미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명 '생명문화의 길'이라 호명할 수 있겠는데, 축제 장소인 성밖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기획하는 것이다. 풍수원리에 따라 조성된 대부분의 전통 마을은 주로 물줄기를 중심으로 옛길과 마을들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 지역의 상류에 있는 계류들은 산자락의 경승지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모태가 되고, 그것이 마을로 내려와 지역 역사문화를 형성하는 뼈대가 되었다.[9]

성주군 홈페이지에는 테마별 관광코스와 함께 한개마을, 태실, 고분군, 독용산성, 회연서원 등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 시간까지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가치 지향적인 새로운 여행문화 혹은 축제문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에서는 2009년부터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성주군은 2013년 '성주가야길'이 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다. 성밖숲에서 성주읍의 역사문화와 한개마을까지 이어지는 지역역사문화 탐방길 조성을 사업화한 바가 있다.

그러나 탐방길 조성 이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문화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취지이다. 자연과 사람, 문화와 마을이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길 조성과 가치 지향적 관광의 지향이라는 사업의 목적[10]은 성주생명문화축제 콘텐츠 기획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탐방길 조성의 취지를 지역 축제와 연결해 보면, 관광형 축제란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 볼 수도 잇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 김태경, 「서울축제의 공간에 나타난 전통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9, 서울학 연구소, 1998. 305쪽.

10) 홍성운,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한국관광정책』 35, 2009. 92쪽.

첫째, 태실로 가는 길이다. 명당발복과 무병장수를 테마로 하는 길이다. 장수와 발복을 기원하며 성밖숲에서 태실까지 약 15km의 길을 보도로 걸어가면서 건강과 기원, 발복의 염원을 담는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미 세계적인 순례길로 유명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야고보의 유해가 그 곳에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곳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의 역사로 구성된 것이다. 태실로 가는 길은 기원의 길이다. 자신과 가족, 사람들의 생명 장수와 발복을 기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태실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공간이 마련되어 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 탄생의 의례를 통해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한개마을 탐방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개마을 대표적인 전통 민속마을로서 전통가옥과 600여년의 역사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한개마을 탐방로가 축제 콘텐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와 축제적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 한개마을은 마을의 주산인 영취산과 좌청룡과 우백호의 풍수와 배산임수의 현장이다. 또한 영조 때 무인 이석문에 얽힌 북비고택의 이야기, 한주 종택의 역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스토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축제 탐방로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개마을의 대표적인 스토리인 이석문과 북비고택의 역사를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구성하고, 공연과 관광, 축제를 아우르는 축제형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기획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비고택은 소설『북비』(하용준, 2007)의 배경된 곳이며, 실제 영조 시대의 사도세자 등과 관련하여 매우 대중적인 역사 스토리의 현장이기도 하다.

셋째, 성산동 고분으로 가는 역사교육의 길이다. 성산동 고분군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고분으로, 가야문화의 역사와 고대의 장례문화와 정신세계를 집적한 곳이다. 이 곳은 가야와 낙동강, 철기문화와 고대 가야의 생활문화를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역사의 현장이다. 축제의 한 축으로 가야문화와 고대의 생활, 죽음의 의례 등을 교육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기획하는 것은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이 될 것이다.

3) 인간 안보와 생명문화축제 콘텐츠

지역 축제의 핵심 기제 중 하나는 지역적 삶의 현재성이다. 지역의 현재와 삶의 현장성에서 거리가 먼 축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성주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의 현장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국가 안보와 지역민들의 삶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현재이다.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갈등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정치군사적 상황에 의한 국가 안보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이나 당장에 정치군사적으로 변화 가능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성주는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모든 의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축제로서의 현재성을 실현하면서 시대의 아젠다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지역민들과의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생명문화축제의 새로운 콘텐츠이자 주제로 '인간안보와 생명'을 제안한다. 생명문화의 현재적 관점과 가치, 성주의 시대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인간안보란 인간(국민)의 안전이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 하에 국가 안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다.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PNUD)이 제시한 이 개념은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인권, 환경,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보장되어야 만이 진정한 안보가 이루어지고 세계 평화도 실현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11]

특히, 2003년 유엔의 인간안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모든 인간 생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유와 권리 행사를 개선하고 인간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에게 생존과 존재 또는 존엄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부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문화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

11) 전학선, 「인간 안보를 통한 인권 보장의 강화」, 『서울법학』 24, 2016. 68쪽.

다.[12]

이러한 인간안보 개념은 단순한 안보 개념을 넘어 생명의 역사를 만들라는 시대의 의제이며, 이를 문화적 제도로 구현하자는 주요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주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배제하거나 차단할 경우, 생명문화축제의 가치와 의미는 축소되거나 왜곡될 것이다. 지금 성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유엔의 인간안보위원회가 밝힌 생명보호에 대한 문화적 제도 마련과 그것의 문화적 실현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생명문화축제가 새로운 가치와 시대성, 생명의 역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태실로부터 현재의 생명 문제에 대한 우리 시대의 문화적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 생명의 역사과 현재에 기반한 소통과 문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안보에 대한 축제 콘텐츠는 다양하게 기획될 수 있다. 우선, 인간안보의 대표적인 영역인 가난안보(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콘텐츠로 할 수 있다. 가난의 역사와 문화, 가난의 극복기, 현재의 가난에 대한 해결 등을 전시와 공연, 교육과 체험 등으로 축제 공간을 구성한다. 또한, 인간안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환경안보, 건강안보, 식량안보 등의 의제를 생명문화축제 콘텐츠로 전환하는 기획과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생명문화의 현재성이자 가장 대중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과 건강, 식량 문제를 생명의 가치와 현재의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화 공동체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성주생명문화축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요 개념으로 하는 정치안보는 성주의 현재상황과 맞물려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영화와 연극, 문화적 형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적 표현들을 모으고 재구성하여 축제 콘텐츠로 전환시킨다면 새로운 축제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12) 전학선, 앞의 논문, 70쪽.

다만, 현재 성주 지역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지역인 만큼, 생명문화축제와 인간안보의 연결을 자칫 이념적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문화축제가 역사 속에서 탄생하여 지금의 삶과 만나고 미래의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지역 사람들의 놀이이자 문화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2011년 축제가 통합된 이후 성주생명문화축제는 나름의 성장과 변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축제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역사성을 상실케 하였다. 축제의 목적도 지역 정체성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 지자체의 홍보와 위상 강화, 글로벌 축제의 실현과 관광자원화 등 과도하거나 초점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축제의 가장 큰 장애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축제의 욕망이라고 한다. 축제는 그 자체로 문화이며 놀이이자 지역적 정체성이다.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진정한 성과와 의미는 축제를 통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등장한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지역에 대한 재발견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주생명문화축제에 대한 올곧은 관점과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가 시기이다.

이를 위해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제 스토리와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축제 스토리는 축제의 핵심 기제를 중심으로 대중과의 기호적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제의 토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성, 공간성, 현재성을 고려한 다양한 축제 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현재적 삶과 깊은 관련 속에서 구현된다. 축제는 지금의 삶을 위한 것이며, 지금의 삶은 축제를 통해 역사 속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축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성주 태실문화의 역사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축제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축제의 현재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축제의 성공도 문화적 가치도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는 역사의 현재성을 확보하는 것이 축제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 하는 대목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단행본

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지』, 성주군, 1996.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실의 태봉』, 참존기획, 2008.

성주문화원(이세동·정병호 역), 『국역 성산지』, 성주문화원, 2010.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2003, 19쪽.

논문

김두규,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풍수」, 『영남학』 28, 2015, 235쪽.

김지영,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문화적 실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45, 효원사학회, 2014.

김태경, 「서울축제의 공간에 나타난 전통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9, 서울학 연구소, 1998. 303쪽.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8호, 인문콘텐츠학회, 2006, 39~57쪽.

신현식,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속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19호, 인문콘텐츠학회, 2010, 512쪽.

전학선, 「인간 안보를 통한 인권 보장의 강화」, 『서울법학』 24, 2016. 68쪽.

홍성운,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한국관광정책』 35, 2009. 92쪽.

Abstract

Study of life culture festival's new direction and festival contents at Seongju-Gun

Park, Seung-h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historicity of Taesil, Royal placenta chambers for the sons of King Sejong the Great in Seongju and to evaluate and seek a new direction of the Seongju Life Culture Festival. Taesil, Royal placenta chambers for the sons of King Sejong the Great in Seongju is both a precio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and valuable cultural content as well. With the development of related cultural contents in full swing, Seongju-gun County Office has proudly hosted and presented Seongju Life Culture Festival as one of the most iconic popular culture contents related to Taesil since 2011.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has covered the evaluation of previous festivals and setting up a new direction while examining especially the identity of the festival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content. The evaluation has been made based on the festival's characteristics, popularity, identity as historic and cultural value, and expandability and the fact that the festival storytelling, subjectivity and popular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long with local present aspect has been suggested as a new direction. In addition, festival spatial content, life history trails, and human security life culture festival have been proposed as the contents of the festival.

key words : Royal placenta chambers for the sons of King Sejong (세종왕자태실), Life Culture Festival, festival's characteristic, festival storytelling, life history trails, human security life culture festival